

 <p>정치하는엄마들 www.politicalmamas.kr</p>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11. 29. 목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배포일시	2018. 11. 29.	총 매 (별첨 0건)

유아교육법 24조2항 개정촉구 기자회견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성인용품을 횡령죄로!

- ▲어제(28일) 교육위 법안소위 불발로 유아 교육권에 위기, (예비)학부모 불안 가중
- ▲자유한국당 등 자체법안 발의 지연, 정기국회 내 선택과 집중 필요
- ▲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방식 변경조항(유아교육법 24조2항)이 정기국회 핵심이다!

- 일시 : 2018년 11월 29일(목) 오전 13시
- 장소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1. 김신애 활동가(유치원 예비학부모)
 2. 김정덕 활동가(유치원 예비학부모)
 3. 기자회견문 낭독
 4. 퍼포먼스
- 퍼포먼스 : 애드벌룬+초대형현수막(6*4m)



□ 어제 교육이 2차 법안소위가 불발 되었다. 자유한국당의 자체 법안 발의도 지연되고 있다. 국회가 꾸물대는 동안 유아 교육권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예비)학부모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이제 정기국회가 단 9일 남았다. 유아교육 정상화의 골드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입법 합의와 관련해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유치원3법의 통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며, 각 당에서 사립유치원 관련해 발의한 법안을 보아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병합심사를 주장하는 한국당의 관련 법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 학부모들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은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한국당이 발의할 법안은 사립유치원만을 위한 맞춤형계와 회계 이원화를 담은 예정인데, 민주당 및 정의당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과 시각차가 크고 국민정서와도 거리가 멀어 병합심사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정기국회 내 사립유치원 관련법 통과라는 원내대표 합의안은 지켜지지 않거나, 학교급식법 등 무쟁점 법안이나 무쟁점 조항들만 통과될 확률이 높다. 즉 국민적 요구에 한참 미달하는 용두사미 정기국회가 될 수 있다.

□ 무엇보다 학부모와 아이들을 불모로 정부와 힘겨루기 하고 있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문제다. 누구보다 관련 입법이 지연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국가관리는 거부하고 국가지원 확대만 요구하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이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의 폐원신청 유치원을 85여 곳으로 집계하고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학부모들과 예비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유아교육 현장은 이미 유치원 대란이 일어난 것만 같다.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나 온라인 유아교육 커뮤니티들마다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신입생 모집 지연 통보가 수도 없이 제보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불안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관련 입법이 지연될수록 한유충은 웃고, 아이들은 운다. 유아교육 정상화의 골든타임이 바로 이번 정기국회인 까닭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유치원3법의 주요내용 만해도 10개가 넘는다. 여기에 발의 예정된 법안들을 감안하면 수십 개의 쟁점이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본회의가 예정된 29·30일, 12월 6일·7일과 주말을 제외하면 제 법안소위가 열릴 수 있는 날짜는 12월 3-5일 단 나흘에 불과하다. 즉 선택과 집중 없이는 골든타임이 허송세월 되고, 새 학기는 현 학기가 되고 말 것이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요구한다. 이제는 원 포인트 개정이다!**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국회가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단 하나의 조항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누리과정 지원금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 개정안**이다. 박용진 의원이 10월 23일 대표발의 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045)을 보면 현행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문에 단서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다. 단서의 내용은 ‘다만, 유아가 유치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한 문장으로 국회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고 유아교육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교비회계에서 성인용품을 사고, 루이비통 가방을 사고, 벤츠를 리스해서 설립자가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가 범죄 행위(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기본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문지마 폐원과 신입생 모집 거부, 처음학교로 도입 거부 행태 등 이미 벌어진 유치원 대란이 정기국회 폐회와 동시에 일단락 될 것이다.

□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 개정으로 누리과정 지원금 지급방식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데 집중하라! 비리유치원 사태가 촉발된 10월 11일 MBC뉴스데스크는 교비회계로 성인용품을 구입하고, 루이비통을 구입했다가 감사에 적발된 동탄 환희유치원을 보도했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처참하게 망가진 유아교육 현장에 망연자실했고, 아이들의 행복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에 고개를 떨궜다. 사립유치원의 이익만 대변하고, 아이들과 학부모를 외면하고, 국가 재정이 허투루 쓰이게 한 정치권과 교육당국을 질타했다. 교비회계를 사적유용해도 무죄가 되는 법의 허점을 메우는 데서 국회는 출발해야 한다.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지급방식 변경 없는 정기국회는 뭘 하든 빈 손 국회일 뿐이다.**

2018년 11월 29일

정치하는엄마들